

일본, 중국 PTA 프로젝트 열기

Mitsubishi, 60만톤 합작투자 추진 ... Mitsui도 단독 60만톤 투자

일본 화학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규모 PTA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중국 화섬원료 시장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Mitsubishi Chemical과 Mitsubishi상사는 중국 Ningbo의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합작 프로젝트에 Itochu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생산능력은 60만톤으로 2006년 7월 완공 예정이며, 투자액은 3억1400만달러에 달한다. 3사는 중국 PT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China International Trust & Investment를 설립했다.

Itochu가 참여하게 된 것은 원료 P-X(Para-Xylene)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Mitsubishi는 중국의 PTA 수요가 830만톤으로 50%를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의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itsui Chemicals도 중국에서 PTA 60만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Mitsui는 100% 투자한 Mitsui Chemicals(Zhangjiagang)을 설립하고 Zhangjiagang에 PTA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2억-3억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세스는 자체 기술을 채용한다.

Mitsui는 중국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PTA 총 생산능력이 300만톤으로 확대돼 BP에 이어 세계2위로 부상하게 된다. BP는 2003년 기준 PTA 총 생산능력이 2700만톤에 달하고 있다.

Zhangjiagang 플랜트는 Mitsui의 4개 중국 프로젝트 중 하나로 Mitsui는 중국에서 Bisphenol-A, Phenol,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Mitsui는 타이에서도 Siam Cement와 합작으로 Siam Mitsui PTA를 설립하고 Map ta Phut에 PTA 50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2005년 가을 가동 예정이다. 타이 플랜트는 차후 140만톤으로 증설할 방침이다.

Mitsui는 아시아의 PTA 수요가 2003년 2000만톤에 달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2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23>